

주님의 회복 안의 유일한 일

(목요일—오후 집회)

메시지 3

승천 안에 있고, 그 영에 의해 수행되며,
신성한 흐름 안에 있는 일

성경: 행 1:8-11, 22, 2:4, 33, 4:33, 5:31, 13:1-4

- I. 주님의 회복 안의 유일한 일은 승천 안에 있는 일이다—행 1:9-11, 2:33, 엡 1:22, 2:6.
- A. 그리스도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보좌에 앉으셨고, 우주 안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머리가 되셨다. 그분은 머리와 주님과 왕과 기름 부음받은 분으로서 보좌에 계시면서, 우주 안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신다—엡 1:22, 마 28:18.
1. 우리는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하늘들 안으로 이끌렸다—엡 2:6.
 2. 하나님은 우주 안의 모든 권위를 그분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 위임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들 안에, 그리고 보좌 위에 있는 것이다.
 3. 그리스도께 승천은 그분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이다. 우리에게 승천은 하늘들의 영역 안에, 보좌 위에 있는 우리의 위치이다.
- B. 그리스도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새로운 영역 안으로, 하늘들 안으로 이끌리셨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는 또 다른 사역을 가지시고 또 다른 생활을 하신다. 하늘들에서의 주님의 생활과 사역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다—행 2:33-34, 36, 5:31.
- C. 사도행전의 주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변식에 관한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변식은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수행된다—행 1:9-11, 2:33, 4:33.
1.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변식은 주님께 의해 하늘들에 있는 보좌로부터 수행된다—행 1:22, 3:13, 15, 4:10.
 2. 승천은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일의 본성과 영역이다. 따라서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주님의 일은 하늘에 속한 본성을 가져야 하고 하늘에 속한 영역 안에 있어야 한다—엡 1:22.
- D. 오늘날 소위 기독교의 일의 많은 부분이 승천 안에 있는 일이 아니지만, 주님의 회복 안의 일은 반드시 주님의 승천 안에 있는 일이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일하고 있다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행 2:32-33.
- E.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서 우리 안으로 오셨다. 그분은 승천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다—골 1:27, 3:1, 롬 8:10, 34.
1. 오늘날 주님은 그분의 승천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딤후 4:22.
 2.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삼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며, 이러한 움직임이 그분의 역사(歷史)와 또한 우리의 역사가 된다. 왜냐하면 그분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었고 동일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고전 6:17.
- II. 주님의 회복 안의 유일한 일은 그 영에 의해 수행되는 일이다—행 1:8, 2:4, 13:2, 9.
- A. 성령의 일에는 두 방면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을 위한 내적인 방면, 곧 본질적인 영이며, 다른 하나는 능력과 권위를 위한 외적인 방면, 곧 경륜적인 영이다—요 14:17, 20:22, 눅 24:49, 행 1:5, 8.

1.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들은 그 영의 두 방면을 모두 체험해야 한다—눅 24:49, 요 14:17, 20:22.
 - a. 내적으로 우리는 생명을 위해 성령을 마셔야 하며, 외적으로 능력과 권위를 위해 성령을 입어야 한다—고전 12:13, 눅 24:49, 행 1:5, 8.
 - b. 내적으로 우리는 생명을 위해 우리 안으로 불어넣어진 성령의 숨이 필요하고, 외적으로 능력을 위해 우리 위에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 필요하다—요 20:22, 행 2:2, 4.
 - c. 우리의 영적인 존재와 존속을 위해 그 영을 우리의 생명으로 체험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다. 반면에 우리의 영적인 일과 기능을 위해 그 영을 능력으로 체험하는 것은 경륜적인 것이다—롬 8:11, 눅 24:49, 행 1:5, 8.
 - d. 생명의 영께 대하여는 우리가 그분을 호흡해야 하며, 능력의 영께 대하여는 엘리야의 겉옷으로 예표된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제복으로 입어야 한다—요 20:22, 눅 24:49, 왕하 2:9, 13-15.
 2.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그 영의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일을 모두 체험해야 한다—엡 5:18, 행 2:4, 4:8, 6:3, 13:9, 52.
 - a. 내적으로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본질적인 영을 생명으로서 체험하는 것이다—엡 5:18, 행 6:3, 13:52.
 - b. 외적으로 그 영으로 충일되는 것은 능력과 권위를 위해 성령 안의 침례를 체험하는 것이다—행 1:5, 8, 2:4, 4:8, 13:9.
- B.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바나마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킬 일이 있다.’”—행 13:2하.
1. 그리스도의 몸의 신실하고 추구하는 다섯 지체들은 섬기고 금식하는 것을 통해 몸의 머리에 기회를 드렸다. 그리하여 그 영이신 그분은 그들을 따로 세우시어 그분의 위대한 위임을 수행하게 하셨다—행 13:1-2상.
 2. 이것은 전적으로 그 영에 의한, 그 영 안에 있는, 그 영과 함께하는 움직임으로서, 이 땅 위의 그리스도의 몸의 신실하고 추구하는 지체들이 하늘들에 계신 머리와 동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행 13:1-2.
 - a. 주님께서 그분의 왕국의 확산을 위해 내딛으신 이러한 위대한 발걸음은 사람의 일정에 따른 종교적인 운동이 아니었다.
 - b. 이러한 일의 시작에는 선교회를 조직하거나 기금을 모으는 것이 없었고, 사람의 임명도 없었으며, 인간적인 어떤 계획이나 방법도 없었다—행 13:3-4.

III. 주님의 회복 안의 유일한 일은 신성한 흐름 안에 있는 일이다—창 2:8-10, 계 22:1.

- A. 성경에서 신성한 흐름, 곧 유일한 흐름에 관한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창 2:10-14, 시 46:4상, 요 7:37-39, 계 22:1.
1. 성경은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 곧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와 생명의 샘이신 아들과 생명의 강이신 그 영을 계시한다—렘 2:13, 시 36:9상, 요 4:14, 7:37-39.
 2. 흐름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이다—계 22:1.
 3. 성경에는 오직 한 흐름, 하나의 신성한 흐름만이 있다. 신성한 흐름은 역대에 걸쳐 흘러왔으며, 유일하게 하나이다—창 2:10-14, 계 22:1.

- B. 신성한 흐름, 유일한 흐름은 교통의 흐름이다—행 2:42, 요일 1:3, 고전 10:16.
1.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은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다. 생명의 흐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있다—계 22:1.
 2. “우리를 통제해야 하는 한 가지 것은 바로 신성한 교통이다. ... 이러한 교통 안에 제한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안에 지켜지고 사역의 일이 계속 전진하게 된다. ... 우리가 교통하는 것을 배운다면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인데, 특별히 주님의 일에서 그러할 것이다.”(세 부분으로 된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 237쪽)
- C. 신성한 흐름, 유일한 흐름은 주님의 일의 흐름이다—고전 16:10.
1. 우리가 일의 흐름, 일의 조류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2.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신성한 흐름, 유일한 흐름을 보여 준다. 주님의 움직임 안에는 오직 하나의 흐름이 있으며, 우리는 이 한 흐름 안에, 곧 유일한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두어야 한다—창 2:8-12, 계 22:1-2, 행 2:33, 비교 15:35-41.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승천 안에서의 주님의 사역

주님의 승천은 그분의 활동의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사람-구주의 승천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 <누가복음 라이프 스타디>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의 하늘에 속한 사역으로의 취임이며 입문이었다. 주님의 잉태는 그분의 첫 번째 시작이고, 그분의 승천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 그분의 잉태는 땅 위에서의 그분의 생활과 사역의 시작이었고, 그분의 승천은 하늘에서의 그분의 생활과 사역의 시작이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의 활동의 종결이 아니었고, 오히려 더 전진된 활동, 곧 하늘에서의 사역의 시작이었다.

누가가 첫 번째로 쓴 책인 그의 복음서는 땅 위에서의 주님의 첫 시작과 생활과 사역을 기술하고 있다. 이제는 주님께서 그분의 승천을 통하여 어떤 종류의 생활과 사역을 시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는 두 번째 책, 곧 사도행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누가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생활과 사역을 밝혀 주는 두 번째 책을 쓸 부담을 가졌던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승천 안에서 어떻게 살고 계시며 사역하시는지를 본다.

우리는 누가복음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그 생활과 사역은 그분의 잉태로 시작되었고 그분의 부활로 끝맺었다. 그런 다음 주 예수님은 부활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 승천은 종결이 아니고 또 하나의 시작이었다. 이 시작은 그분을 새로운 영역, 즉 그분께서 지금 또 다른 생활과 사역을 갖고 계시는 곳인 하늘들 안으로 이끌었다. 이런 생활과 사역은 처녀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수행된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현재 하늘들에서 살고 계시며 또한 거기에서 사역하고 계신다. 하늘에서의 주님의 생활과 사역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다. 부디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의 시작부터 이 그림으로 깊은 인상을 받기 바란다.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1장, 12-13쪽)

승천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활동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은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수행된다. 주 예수님은 땅 위에서 삼십삼 년 반을 사셨지만 지금은 승천 안에 계신다. 주님은 승천 안에서 매우 활동적이시다. 우리는 결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저 수동적으로 보좌 위에 앉아 계시면서 땅 위의 가련한 상황을 지켜보며 그것에 실망감을 느끼고 계실 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 승

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다. 승천한 분으로서 그분은 지금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신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은 사례는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활동을 보여 주는 하나의 예이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은 스테반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스테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눈여겨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가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라고 하니”. 주님은 승천 안에서 땅 위의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서 계셨다. 마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다. “너희 박해하는 이들은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 가운데 한 명인 다소의 사울을 얻어서 그를 스테반보다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이에 관해서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돌을 던지고 있고 나는 지켜보고 있다. 잠시만 기다려라. 너희는 패배당할 것이다.” 스테반의 사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매우 활동적이심을 예시(例示)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승천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비단 그분께서 하늘들에 계신다는 뜻일 뿐 아니라, 또한 그분께서 능력과 권위를 갖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하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주 가운데 모든 능력과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승천 안에서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주님은 매우 활동적이시다. 지금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승천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우주적이고도 영원한 번식을 수행하고 계신다.

오늘날 땅이 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는지 누가 설명할 수 있는가? 왜 세상에 수많은 믿는 이들이 있는가? 영웅들이 땅을 장악하려고 시도했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예를 들어, 히틀러는 이것을 해보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나폴레옹은 패전한 후에 하늘을 쳐다보며 예수님이 자기를 치셨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나폴레옹은 비록 주 예수님이 전쟁을 하지 않으셨지만 모든 것을 얻으셨다는 것을 시인했다. 여기에서 중점은 온 땅이 결코 패하지 않는 분의 손 안에 있으며, 이분이 그분 자신의 번식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2장, 21-22쪽)

승천 안에서의 일

우리는 사도행전의 주제가 그분의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들, 곧 하나님의 왕국을 산출하기 위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에 관한 것을 보았다(행 2:24, 3:15, 5:30, 13:33). 이제 우리는 이 번식이 주님께 의해 하늘들에 있는 보좌로부터 수행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 그분의 번식하시는 일이 승천 안에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날 소위 기독교의 일의 많은 부분이 승천 안에 있는 일이 아니지만, 주님의 회복 안의 일은 반드시 주님의 승천 안에 있는 일이어야 한다. 승천은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일의 본성과 영역이다. 따라서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주님의 일은 하늘에 속한 본성을 가져야 하고 하늘에 속한 영역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번식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승천 안에서이다. 우리는 그분의 승천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 후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승천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일은 그분의 부활의 본성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일은 타고난 것이 아니며 타고난 사람에 속한 그 무엇도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부활 안의 신성한 생명에 속한 것이며, 그분의 승천의 분위기와 상태 안에서 수행된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영에 의해

승천 안에서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은 그 영에 의한 것이다. 그분의 번식은 어떤 책략이나 사람의 기술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번식에 관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상황을 살펴보자. 그 영에 의한 번식이 어디에 있는가? 많은 경우 그 영에 의한 것은 별로 없고, 사람의 방법과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파하

는 데 심지어 록 음악을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이 그 영에 의한 것, 특히 경륜적인 영에 의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번식을 수행하기 위한 경륜적인 영을 볼 수 있다.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2장, 23-24쪽)*

그 영이신 주님의 말씀하심

그들이 이런 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그 영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행 13:2)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여기서 성령께서 바로 주님이심을 가리킨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은 주님과 따로 분리되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혹자는 그 영을 주님의 대행자 혹은 대표자라고도 말한다. 만일 그 영께서 단지 주님의 대행자에 불과하다면,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성령은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 대신 그 영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했다. “나, 성령은 주님의 대행자이다. 나는 주님을 대표하며 그분을 위해 일한다. 그러므로 나는 바나바와 사울을 나를 위해 따로 세우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위하여 일하는 분인 주님을 위해 따로 세우라고 말한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는 주님과 성령과 ‘나’가 나온다. 이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성령이지만 할 뿐 주님은 아닌가? 확실히 이 구절의 ‘나’는 주님이시다.

다섯 신언자들과 교사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들이 섬기고 있을 때 성령이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바울의 말과 일치한다.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고후 3:17) 그러므로 그 영은 바나바와 사울을 ‘나를 위해’ 따로 세우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 이 ‘나’는 주님이신 동시에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주님과 분리된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 성령은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시다. 우리는 섬길 때 주님을 섬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성령으로서 응답하신다. 그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서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이방 세계에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 주님께서 내딛으신 커다란 발걸음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이신 성령, 곧 몸의 머리이신 분은 다섯 명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들을 불러 시키실 일을 위해서였다. 이것은 그분의 왕국 복음을 이방 세계로 확장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내딛으신 위대한 발걸음이었다. 그것은 시리아 내에 있는 이방 중심지인 안디옥에서 선교회를 조직하거나 기금을 모으는 것이 없이, 사람의 임명이나 인간적인 어떤 계획이나 방법도 없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다섯 명의 신실하고 추구하는 몸의 지체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들은 섬기고 금식하는 것을 통해 몸의 머리에 기회를 드렸다. 그리하여 그 영이신 그분은 그들을 따로 세우시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분의 왕국을 확산하여 이방 세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그분의 위대한 위임을 수행하게 하셨다.

이 중요한 단계는 조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조금도 관련된 것이 아니었으며, 베드로와 예루살렘의 다른 열한 사도들의 권위와 지지 아래 있지도 않았다. 그것은 어떠한 유대교적인 배경과 실행의 분위기와 영향으로부터,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의 실행과 영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방의 중심지에서 완전히 단독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이 땅에 있는 신실하고 추구하는 몸의 지체들과 하늘에 계신 머리의 협력으로 말미암아, 그 영에 의해, 그 영 안에서, 그 영과 함께 하는 하나의 움직임이었다. 이것은 사람에게 의해 예정되고 계획된 종교 운동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한 이 땅에서의 주님의 움직임은 안디옥에서부터 전적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비록 주님의 움직임의 흐름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다음 안디옥에 이르렀고 안디옥에서 이방 세계로 흘러갔지만, 그것은 안디옥에서 전환점을 가졌고 그 영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가졌다.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36장, 302-303쪽)*

한 몸으로서 행하고 움직임

사도행전의 전체 기록은 또한 우리에게 언제나 몸으로서 행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여 준다.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베드로도, 요한도, 저 백이십 명의 믿는 이들도 개별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단체의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한 몸의 행동이었다. 백이십 명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였고, 성령 안의 침례를 받았으며, 복음을 전파하였고, 예수님의 증거를 짊어졌으며, 항상 한 몸으로서 움직이고 행동하였다(1:14, 2:1, 4, 14, 46-47).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이 단체의 사람들의 행동은 한 몸의 행동이었다.

저희 중에서 개인적으로 행동하였던 사람을 찾기는 쉽지가 않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비록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었을 때 혼자서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복음 전파를 입증하기 위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왔었다(5, 14-17절). 몸에게 능력이 되시는 성령은 빌립의 복음 전파를 통해 그 믿는 이들 위에 임하지 않으셨다. 성령께서 몸에 전달되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마리아 믿는 이들에게 안수했을 때였다. 이것은 심지어 빌립이 복음을 전한 것도 개별적인 행동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가 복음을 전파한 것은 몸의 움직임과 관련되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각장마다 개인적인 믿는 이들이 아닌 몸의 움직임과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활동들은 몸에 속한 것일 뿐 아니라 몸을 위한 것, 즉 교회의 건축을 위한 것이었다. 아무도 몸과 관계가 없는 방식으로 처신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나 몸의 건축을 위한 방식으로 처신하였다. 그들이 행했던 것의 결과는 교회의 건축이었다. 이 책의 활동들은 오늘날의 기독교의 움직임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몸에 속하거나 몸을 위하는 방식으로 처신하지 않는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사도행전은 항상 몸을 위해, 몸을 통하여 처신하고 일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대한 기록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 교회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 건축되었다. 사도행전은 믿는 이들이 활동하고 일하고 움직일 때 한마음 한뜻으로 있었던 것을 아름답게 묘사해 준다. 그들은 언제나 몸 안에서 몸을 위하여 움직였다.

하나의 신성한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행하고 일함

마지막으로 이 책은 우리에게 신성한 흐름을 보여 준다. 이 흐름은 하늘들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계 22:1).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일들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림과 동일하다. 이 흐름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시작했고, 사도행전에서 그 흐름은 이 땅으로 와서 첫 번째 정류장인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는 이 흐름 안에 있었다. 이 흐름이 진행되면서 그들은 다만 이러한 흐름이 가는 대로 움직였다. 이 흐름은 결국 안디옥까지 나아갔다(행 11:19-21). 안디옥은 흐름이 동방에서 서방으로 움직이는 전환점이 되었다. 흐름은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향하여 소아시아와 유럽 동부에 위치한 마케도니아 사이의 에게 해를 지났고, 그 바다로부터 유럽에 이르렀다(행 16:10-12). 거기에서 주님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서유럽과 로마로 향하였다(행 28:14, 30-31). 우리는 예루살렘부터 안디옥까지, 서쪽으로 바다를 지나 동부 유럽까지, 거기에서 로마를 포함하는 유럽 중부 지역까지 흐름을 추적하여 선을 그을 수 있다.

신성한 흐름은 동쪽을 향하지 않고 오히려 서쪽을 향하여 움직였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역사와 지리와 그 시대의 문화를 알아야 한다. 그 당시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기가 어려웠다. 서쪽으로 가는 것 외에는 돌아갈 다른 길이 없었다. 역사는 우리에게 로마 제국이 많은 고속도로를 건설하였음을 말해 준다. 게다가, 지중해에서는 교통이 발달하였고,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서방으로 향해하기가 아주 용이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의 섞임이 잦았으며, 언어와 심지어 시민권도 공유할 수가 있었다. 여행을 하는 데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 어떤 사람이 로마 시민이었다면 지중해 전역을 여행할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이 다른 모든 나라가 로마 제국 아래에서 하나가 되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이 땅 위에는 오직 한 흐름만이 있었으며, 초기의 모든 제자는 그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행하고 일하였다. 그 흐름에는 두 노선이 없었다. 언제나 한 노선뿐이었다. 곧이어 주님께 일으켜진 모든 사람이 흐름 안으로 이끌려졌다. 흐름이 서방으로

흘러가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볼로와 같은 그러한 믿는 이들이 주님께 일으키심을 받아 이 한 흐름 안으로 인도되었다(행 18:2, 24-28).

한 흐름보다 더 많은 흐름들에 대한 기록은 없다. 바나바는 어느 시점까지 이 한 흐름 안에 있었다. 그 이후에 그는 흐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행 15:35-39). 그다음부터 사도행전에는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나와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가 더 이상 흐름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흐름에는 오직 한 노선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흐름은 여러 방향으로 갈라져 있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오늘날의 유료 고속도로와 같지 않다. 새 예루살렘에는 오직 한 흐름, 한 길뿐이다.

바나바의 일을 예로 든 것처럼 오늘날에는 한 흐름 안에 있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다. 바나바의 일은 흐름 안에 있지 않았다. 반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일은 흐름 안에 있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으나, 어쩌면 우리의 일이 신성한 한 흐름 안에 있지 않을 수가 있다. 교회사 전체를 통하여 볼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일은 이 유일한 흐름 안에 있었지만, 많은 일들이 주님을 위한 것이었을지라도 흐름 안에 있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로마 천주교의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지만, 한 흐름 안에 있지 않다. 흐름 안에 있는 일은 주님의 현재의 증거의 일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빛 안에서 본 신약의 개관(1), 154-158쪽*)